

미해결

미제 사건 파일 · 79-1142

등대 연락선

메인주 턴 아일랜드 · 1979년 10월

1~6명

2~3시간

문서 35건

봉인된 봉투 3개

이 파일 사용법

당신이 수사관입니다

1979년, 한 등대지기가 숨졌습니다. 카운티는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이 상자에는 남아 있는 문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강조 표시도 없고, 순서도 뒤섞여 있으며, 일부는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봉투 세 개

D 표시가 있는 문서부터 시작하세요. 질문 A의 답에 팀이 합의하면 봉투 A를 열고 첫 페이지에서 답을 확인하세요. B와 C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쇄 방법

단면으로 인쇄하세요. 봉투 A, B, C는 별도 파일입니다. 각각 읽지 말고 인쇄해서 따로 봉투에 봉하세요. D 문서는 탁자 위에 펼쳐 두세요 — 한눈에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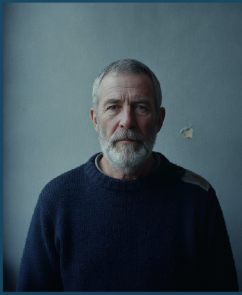
힌트 없음

힌트도, 형사의 메모도 없습니다. 모든 답은 최소 두 개의 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메모하고, 직접 시간표를 만들고, 토론하세요.

질문

- A. 사고였는가? 아니면 사일러스 렌은 어느 시간대에 사망했는가?
- B. 범인은 그날 밤 어떻게 섬에 들어왔으며, 어떤 이름을 썼는가?
- C. 누가, 왜 사일러스 렌을 죽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물적 증거는 무엇인가?

관련 인물



사일러스 렌

1957년부터 해안경비대와 계약한 민간인 신분의 턴 포인트 등대지기. 그의 아버지도 같은 일을 했다. 58세. 1979년 10월 14일 일요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노라 렌

피해자의 아내, 51세. 섬 우체국 창구를 맡고 있다.



데일 브로디

메리 엘런호 갑판원, 34세. 자기 바닷가재 통발도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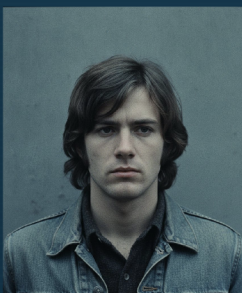
잉그리드 소렌슨

걸 코티지를 빌려 지내는 방문객, 29세. 화가라고 한다.



에버렛 러스크

보스톤의 부동산 개발업자, 45세. 턴 포인트를 사들이려 했다.



툼 렌

피해자의 아들, 26세. 본토의 포트 웨스콧에 산다.

상자 내용물

D-01	사건 배정
D-02	사건 보고서 - 녹스 카운티 보안관실
D-03	검시관 - 소견 요약
D-04	등대지기 일지 - 10월 12일 금요일
D-05	등대지기 일지 - 10월 13일 토요일
D-06	등대지기 공지 - 등불 시계장치
D-07	해안경비대 지구대 무선 일지 - 10월 13~14일
D-08	메리 엘런호 - 운항 시간표
D-09	승선 명부 - 10월 13일 토요일
D-10	진술서 - 노라 렌
D-11	진술서 - 데일 브로디
D-12	진술서 - 잉그리드 소렌슨
D-13	진술서 - 에버렛 러스크
D-14	진술서 - 톰 렌
D-15	조석표 - 포트 웨스콧, 1979년 10월
D-16	연안 수로지 - 턴 아일랜드 접근로 (발체)
D-17	지도 - 턴 아일랜드와 포트 웨스콧
D-18	웨스콧 쿠리어 - 1979년 10월 16일
D-19	편지 - 노스이스트 뮤추얼 생명보험
D-20	편지 - S. 렌이 해안경비대 지구대에
D-21	현장 사진 - 제1장

봉투 A, B, C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목록에 없습니다.

메인주 경찰 · 중대범죄수사과 · 미제사건 재수사팀

수사관께,

1979년 10월, 등대지기 사일러스 렌이 턴 아일랜드 턴 포인트 등대의 탑 계단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카운티는 사고에 의한 추락사로 판정하고 일주일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족 한 분이 재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이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정리하거나 표시해 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은 세 단계로 수사하십시오. 봉투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전에는 그 봉투를 열지 마십시오.

봉투 A	사고였는가? 아니라면 사일러스 렌은 어느 시간대에 사망했는가?
봉투 B	범인은 그날 밤 어떻게 섬에 들어왔으며, 어떤 이름을 썼는가?
봉투 C	누가, 왜 사일러스 렌을 죽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물적 증거는 무엇인가?

A. 코발치크 경사

미제사건 재수사팀

사건 번호	79-1142
신고 일시	1979. 10. 14.(일) · 06:50 (전화 신고)
장소	턴 아일랜드 턴 포인트 등대
신고인	노라 렌 (아내)
출동	턴 아일랜드 상주 보안관보 H. 메릿 (07:15 현장 도착, 도보)

사망자는 탑 내부 철제 계단 아래에서 엎드린 채 발견됨. 등명실 문 열려 있음. 탑 출입문 (암반 쪽) 잠겨 있지 않음. 강제 침입 흔적 없음. 사망자는 등불의 시계장치를 감기 위해 밤마다 여러 차례 계단을 오른 것으로 알려짐. 계단은 가파르고 닳아 있음.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밤사이 해안경비대로부터 등불이 꺼졌다는 연락이 있었음. 남편이 어둠 속에서 추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처리: 사고사. 검시관에게 인계. 추가 조치 없음.

보안관보 H. 메릿 #31

고인	사일러스 애벗 렌, 58세
검시	1979. 10. 15., 록랜드

1. 좌측 후두부 함몰 골절 2개소. 간격 약 3cm, 각각 대략 원형이며 지름 약 2.5cm.
2. 전완부, 정강이, 얼굴에 다수의 찰과상. 계단에서의 추락과 부합함.
3. 좌측 손목 골절.
4. 혈중 알코올: 검출되지 않음.
5. 위 내용물: 차, 빵, 생선. 체온 및 사후경직으로 추정한 사망 시각: 10월 13일 22:00부터 10월 14일 02:00 사이.

소견: 손상은 추락과 부합함. 두개골 골절 2개소는 한 번의 추락으로는 드문 형태이나, 계단 모서리에 두 번 부딪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검시의 R. 찬들러

시각	기록
06:48	일출 소등. 시계장치 멈춤. 렌즈 청소.
09:00	남서풍 10. 브로디의 통발이 또 항로 표지 안쪽에 있음. 이달 들어 세 번째. 지구대에 편지 쓸 것.
17:30	점등. 시계장치 감음.
21:30	시계장치 감음. 시정 양호.
01:30	시계장치 감음. 열은 안개.

시각	기록
05:30	시계장치 감음. 안개 걷히는 중.
06:49	일출 소등. 시계장치 멈춤.
10:15	러스크 씨가 또 서류를 들고 당직실에 옴. 지난번과 같은 대답을 해 줌. 조계 받아들이지 않음.
17:30	점등. 시계장치 감음. 복서풍, 약함.
21:30	시계장치 감음. 맑고 추움.
23:10	작은 배 한 척이 곁을 돌아 선착장 쪽으로 들어옴. 항해등 없음. 선외기.
23:30	등 점점. 잘 타고 있음.

미국 해안경비대 · 제1관구 · 항로표지과

텐 포인트는 제1관구에서 아직도 원래의 추 구동식 시계장치로 렌즈를 돌리는 마지막 등대 중 하나이다. 전동 구동 장치는 1977년에 고장 났으며 자동화 이전에는 교체되지 않는다. 이러한 등대의 등대지기는 다음 사항을 유념할 것.

1. 시계장치를 한 번 끝까지 감으면 렌즈가 약 4시간 10분 동안 회전한다. 추가 바닥에 닿으면 렌즈 회전이 멈추고 고유의 등질이 사라지므로, 등이 꺼진 것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계장치는 점등 시부터 예외 없이 4시간 간격으로 감아야 하며, 감을 때마다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각 등대는 자동화될 예정이다. 검사관이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시각	교신
22:40	어션 키티웨이크호, 포트 웨스콧 출항. 밤새 텐 아일랜드 동쪽에서 조업.
01:52	어션 키티웨이크호, 텐 포인트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02:10	텐 포인트 당직실로 전화. 응답 없음.
02:40	항행 경보 방송: 텐 포인트 등대 소등.
06:15	섬 우체국의 N. 렌 부인에게 전화. 등대지기 확인 요청.
07:30	녹스 카운티 보안관실 등대지기 사망 통보.

메리 엘런호 · 포트 웨스콧 - 턴 아일랜드 · 가을 시간표

포트 웨스콧 출발	07:00 · 15:30
턴 아일랜드 출발	08:00 · 17:30
소요 시간	약 40분

메리 엘런호는 밤에는 포트 웨스콧에 정박한다. 10월 1일 이후 저녁 운항 없음. 승객은 승선 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메리 엘런호 · 승객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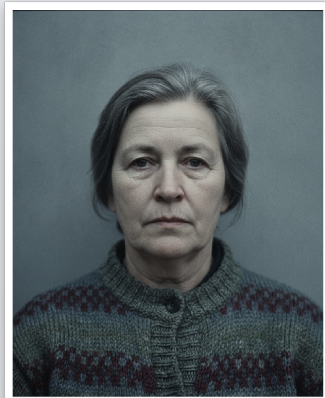
07:00 포트 웨스콧 출발

- | | |
|---|-----------------------|
| 1 | E. 러스크 — 보스턴 |
| 2 | M. 홀리스 — 턴 아일랜드 |
| 3 | 툼 렌 — 포트 웨스콧 |
| 4 | (화물: 우편 12자루, 디젤 2드럼) |

17:30 턴 아일랜드 출발

- | | |
|---|-------------|
| 1 | E. 러스크 |
| 2 | 툼 렌 |
| 3 | R. & J. 페팅길 |
| 4 | M. 홀리스 |

승무원: 선장 W. 에임스, 갑판원 D. 브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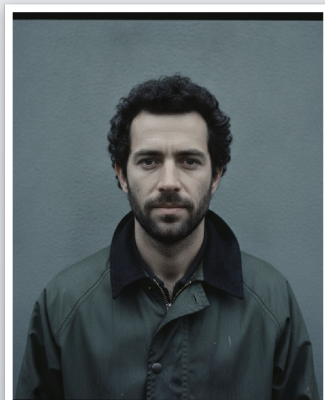


저희는 마을에 있는 우체국 집에 살아요. 성수기에는 사일러스가
곳에 나가서 탑 아래 작은 당직실에서 밤을 보내요 – 거기에
등대 전화가 있거든요. 저는 열 시쯤 잤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 곳은 우체국 집에서 반 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바람도 육지 쪽에서 불었으니까요.

해안경비대에서 여섯 시 십오 분에 전화가 왔어요. 해안 길을
따라 걸어 나갔는데 – 십 분 거리예요 – 계단 아래에 그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게로 뛰어 돌아가서, 일곱 시 십 분 전에
우리 보안관보 해럴드 메릿에게 전화했어요.

러스크 씨는 일 년 내내 사일러스한테 곳을 팔라고 졸랐어요.
사일러스는 팔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땅이었고, 그 전에는
시할아버지의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러스크 씨에게 그건 제가
아니라 사일러스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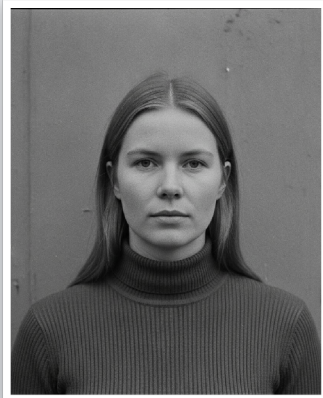
네, 보험이 하나 있어요. 톰이 태어났을 때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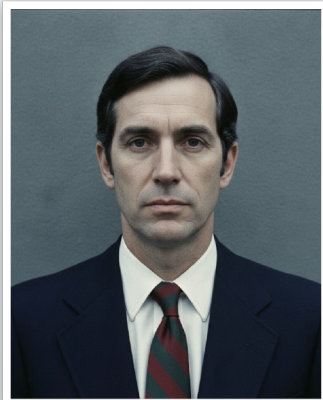
메리 엘런호를 포트 웨스콧에 댄 게 여섯 시 십오 분쯤이었어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아내랑 텔레비전 보다가 잤습니다. 섬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사일러스랑 저는 제 통발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 양반이
저에 대해 편지도 썼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해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배요? 샐리 B호요?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조선소에 올라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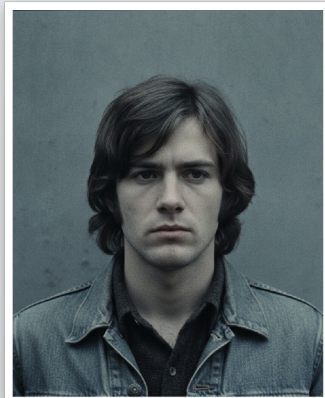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려고 한 달 동안 걸 코티지를 빌려 지내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탑을 스케치하려고 곳까지 걸어갔는데, 탑 아래 작은 당직실에서 남자 둘이 연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은 등대지기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남색 블레이저를 입은 키 큰 남자였는데 — 이 섬에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말쑥했어요. 그날 밤은 코티지에 있었어요. 열한 시쯤 별을 보러 한 번 나갔어요. 그때 등불은 돌고 있었어요. 배는 못 봤어요. 자정쯤 잤어요.



렌 씨에게 턴 포인트 부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하려고 아침 배로 건너갔습니다 — 아주 후한 제안이었죠.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실망은 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17:30 배로 돌아와 하버 인에 투숙했고, 저녁 내내 방에서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열 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른 약속이 있었거든요 — 일요일에 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찬이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머물다가 차를 몰고 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사님, 저는 키가 6피트 3인치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대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어머니를 뵈러 건너갔다가 다섯 시 반 배로 돌아왔어요. 러스크랑 같은 배였죠 — 그 사람은 고물에 앉아서 아무하고도 말을 안 했어요.

저녁에는 앵커에 있었어요. 동네에 빛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 일로 그날 아침 아버지랑 말다툼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쫓겨날 때까지 앵커에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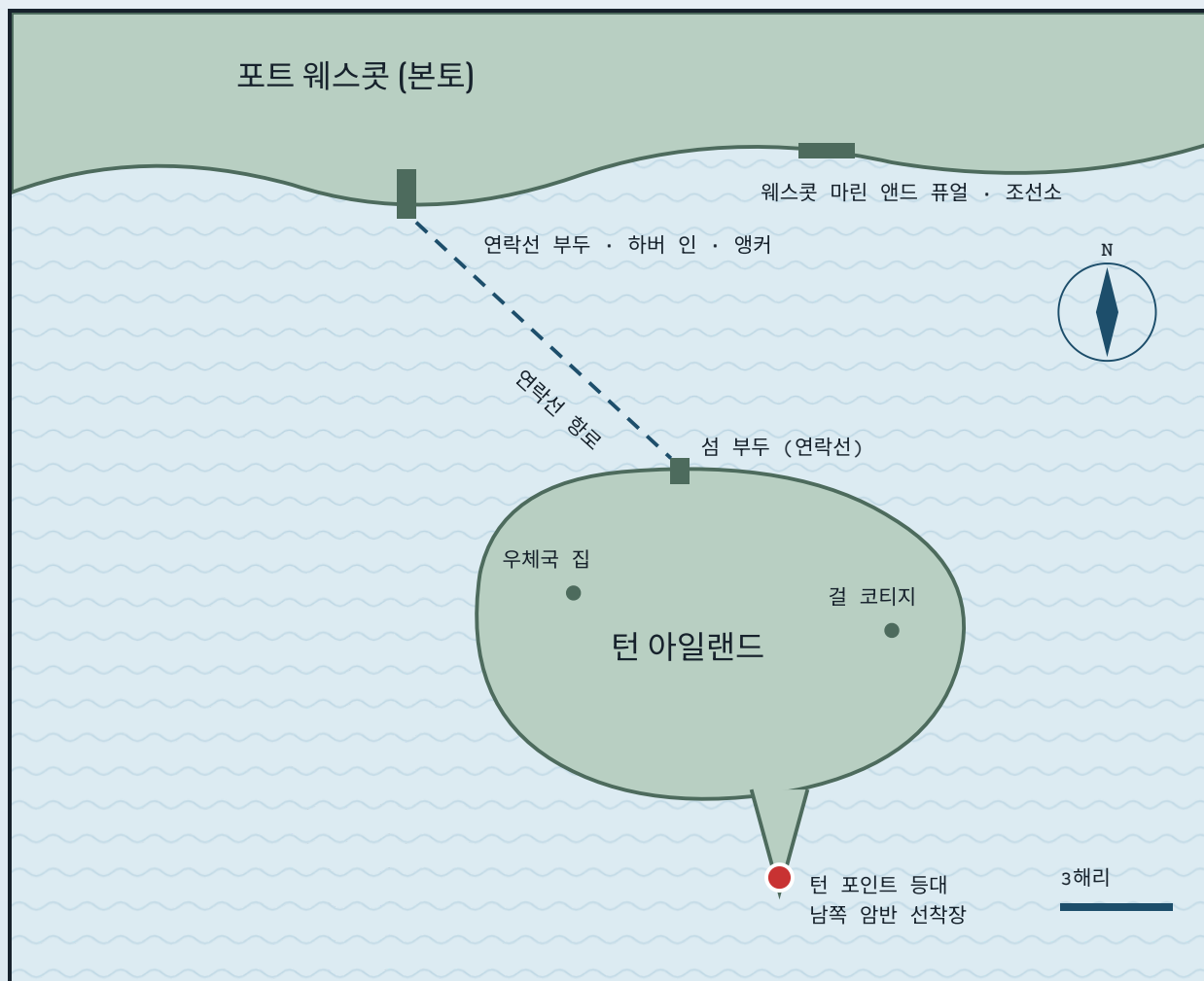
날짜	만조	간조	만조	간조
12일(금)	04:02	10:14	16:25	22:31
13일(토)	04:51	11:03	17:14	23:20
14일(일)	05:40	11:52	18:03	—
15일(월)	00:09	06:29	12:41	18:52

시각은 동부 일광절약시간 기준. 조고는 생략함.

턴 포인트 선착장. 곳 남쪽, 탑 아래에 있는 바위 암반. 저조 전후 약 2시간 이내에만 소형선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시에는 너울이 암반 위로 부서진다.

거리. 포트 웨스콧에서 턴 포인트까지 소형 선외기선으로 날씨가 좋을 때 약 50분. 메리 엘런호는 곳이 아니라 북쪽 해안의 섬 부두를 이용한다.

등광. 턴 포인트 등대, 10초마다 백색 섬광 1회, 광달거리 14마일.



웨스콧 쿠리어

턴 포인트 등대지기, 추락해 숨져



22년간 턴 포인트 등대를 지켜 온 등대지기 사일러스 렌 씨가 일요일 새벽 등대 탑 안에서 추락해 숨졌다. 향년 58세.

해럴드 메릿 보안관보는 렌 씨가 등불을 돌보던 중 철제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요일 새벽 두 시 직전, 한 어선이 등대 불빛이 꺼졌다고 신고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노라 씨와 포트 웨스콧에 사는 아들 토머스 씨가 있다. 해안경비대는 이 등대를 내년에 자동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섬 소식으로, 행정위원회는 11월 주민총회에서 보스턴의 개발업자 에버렛 러스크 씨가 낸 남쪽 해안 여름 별장 건설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노스이스트 뮤추얼 생명보험 · 포틀랜드

렌 부인께,

사일러스 A. 렌 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권 44-10937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20,000달러이며,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두 배인 40,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카운티의 판정 결과를 받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관계자 귀하,

포트 웨스콧의 D. 브로디 소유 바닷가재 어구가 턴 포인트 앞 항로 표지 안쪽에 설치되어 진입로를 막고 있어, 세 번째로 이를 보고드립니다. 본인은 그에게 두 차례 직접 말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등대지기 S. A. 렌 올림



사진 1 — 탑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사진 2 — 등명실, 08:40. 시계장치를 감는 크랭크가 걸이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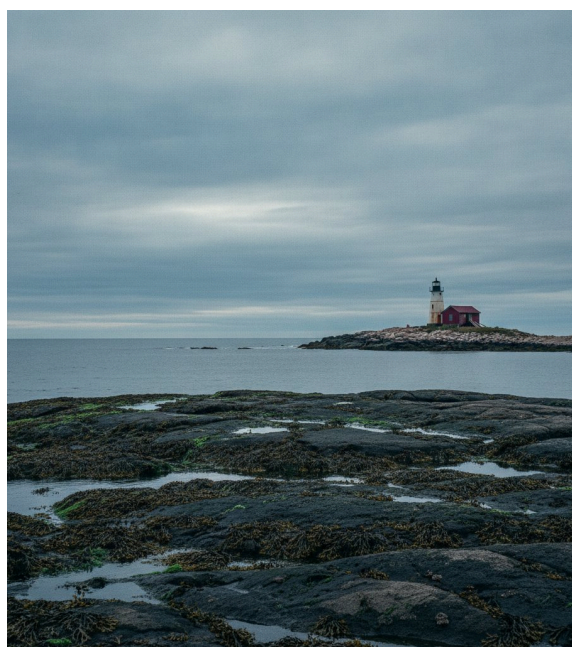


사진 3 — 탑 아래 남쪽 암반 선착장, 일요일 저조 때

수사 작업지

직접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1979년 10월 13일 토요일 → 10월 14일 일요일.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